“국가기록원 ‘5·16 혁명’ 사용 잘못”

이용호 의원 “대통령기록관 등은 ‘5·16 군사정변’으로 기재해야”… 원본 유지 주장 맞지 않아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이 5·16 관련 기록물에 정식명칭인 ‘5·16 군사정변’ 대신 ‘5·16 혁명’, ‘혁명’ 등 잘못된 표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당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국가기록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건의 5·16 관련 자료 중 ‘5·16 혁명’ 또는 ‘5·16 군사혁명’으로 표기된 자료가 606건, ‘5·16 쿠데타’로 표기된 자료는 386건, ‘5·16’으로만 표기된 자료가 1,069건이라고 밝혔다.

대통령기록관도 마찬가지로 98건의 자료 중 98건 모두 ‘5·16 군사정변’이라고 기록된 자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용호 의원은 “‘5·16’은 1993년 과거사 바로세우기 운동을 통해 ‘5·16 군사정변’으로 규정되었고, 대법원도 2011년 국가보도연맹사건의 피해자 소송 판결문에서 ‘쿠데타’로 표현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 역시 ‘오일륙 군사 정변’을 정식 명칭으로 기재하고 있다”며 “국가 중요문서를 다루는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5·16 군사정변’이라는 사전적 명칭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가 기록원은 이는 영구기록물 기술규칙에 따라 원본 제목을 유지하는 것이라 반박했다.

최순실 의혹에 대한 질의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순실, 미르재단 의혹과 관련해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그러나 영구기록물 기술규칙을 파악해본 결과 ‘본제목을 수정, 보충, 번역하여 기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타제목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존재하고 있어 국가기록원의 주장은 맞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민근 기자

전북도의회,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전북도가 도시가스 설치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가스공급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8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김현철(더불어민주당·진안)·김대중(더불어민주당·익산1) 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이 최근 상임위 심사에서 원안 통과됐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장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며, 내년에 10억원 이상 예산이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계획을 전북도가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돼 있고, 공급배관 등 설치비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에 대한 도(道)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현철 의원은 “전북도가 에너지 소외 지역에 대한 관심이 저조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 “가스 미공급지역의 설치비 지원에 도비 지원이 더 인색했다”고 주장했다. /고민형 기자

“朴 대통령-김정일, 4시간 대화내용 알고 있다”

박지원 “2002년에는 북한과 약속 안지키고 태극기 흔드냐고 화 내놓고선…”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18일 “저는 국민의 정부에서 박근혜 당시 야당 대표가 평양에 가서 김정일과 나눈 대화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며 박 대통령이 지난 2002년 미래한국연합 대표 자격으로 방북,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과 회담했던 사실을 새삼 거론했다.

새누리당의 ‘송민순 회고록’ 공세에 대한 일종의 역색깔 공세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네 시간 동안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잘 알고 있다”며 “특사를 요구했는지 안 했는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박 대통령과 김정일간의 비공개 대화 내용을 자신이 상세히 알고 있음을 경고했다.

박 위원장은 더 나아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2002년 방북 이후) 상암구장에서 남북 축구팀이 시합할 때 그 자리에 와서 태극기를 흔드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왜 태극기를 흔드느냐, 한반도기를 흔들어야 한다’고 화도 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다면 우리가 태극기를 흔들지 말게 한 박 대통령에게 색깔론을 제기해야 하느냐. 그런 것은 저희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충정에 의해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의 해당 언급은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의 자서전 ‘나의도전 나의열정’에 나오는 부분을 인용한 것이다.

정 전 대표는 자서전에서 지난 2002년 9월 남북축구경기 도중 박근혜 의원이 “관중들이 한반도기를 들기로 했는데 왜 태극기를 들었느냐”고 했고, 경기 전 붉은악마가 ‘대한민국’을 외치자, “왜 ‘통일조국’을 외치기로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 자신에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 전 대표는 “관중들은 축구협회 직원이 아니고, 자기 돈 내고 들어온 사람들한테 태극기를 들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지원 위원장은 이같은 과거 박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그때의 마음은 어디에 가고 지금의 마음은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제재냐 평화적 방법이냐의 이견은 있겠지만 모든 것이 통일과 평화, 국가를 위함이라는 것은 서로 이해하자”고 새누리당의 색깔 공세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아울러 “요즘 우리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정신이 나간 것 같다”며 “저희 당을 향해 느닷없이 민주당 2중대냐고 하더니, 오늘은 또 17년 전 대북송금특검 문제에 대해 4억5,000만달러를 당시 북한에 송금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고 원색 비난했다.

이어 “이건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통해 4억5,000만달러는 현대그룹이 철도 등 대북사업 7가지의 사업 베이스로 지급했다고 (결론이) 났다”고 일갈했다./뉴시스

우상호 “새누리, 색깔 빙하 올라타 아주 신 났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송민순 회고록 폭로’ 사건과 관련, “녹아내리는 색깔론의 빙하 위에 새누리당이 올라탔다”고 비꼬았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문제로 새누리당이 아주 신난 모습을 오랜만에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안타깝다. (회고록 논란은) 허망하게 사라질 신기루일 뿐”이라고 새누리당의 색깔론 공세를 꼬집었다. 그는 이어 “지금 박근혜 정권에 들어서서 한반도는 평화로운가. 남북대화가 상시적으로 진행되던 시기에 비해 훨씬 더 안전한가”라며 “저는 본질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대화를 내통이라고 말하는 그런 수준의 인식으로 남북관계가 꽉 막힌 지금 우리는 핵과 미사일 공포, 언제 어느 때 국지전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전쟁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며 “전 이게 본질이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오로지 매파들, 전쟁 불사론자들밖에 없는 지금의 외교안보라인이 건강한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남북대화를 내통이라고 하고, 북한을 괴롭히고 욕하고 조종하는 그런 제재일변도의 정책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야권의 유력 후보를 망가뜨리기 위해 평화와 핵논쟁을 끌고 가는 집권당 대표에게 비애를 느낀다”며 “정신 차려라. 대한민국은 이렇게 한가로운 나라가 아니다. 위기다”라고 일갈했다. /뉴시스

김병욱 “K스포츠재단 80억, 최순실 모녀 회사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K스포츠재단이 모금한 80억원이 최순실씨와 그의 딸 정유라씨가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유입됐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관련 보도를 기정사실화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K스포츠재단의 박모 과장이 독일에서 최씨의 딸에 대한 편의를 직접 봐준 정황에 이어, K스포츠재단이 비인기종목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추가로 80억원을 모금해 최씨와 그의 딸이 공동경영하는 회사에 위탁을 주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미르·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다. 두 재단은 출발 자체부터 엉망”이라며 “대통령의 해외순방길을 K스포츠재단이 인위적으로 만든 K스피리트가 수행하거나 차은택 감독이 주도하는 문화창조벤처단지 지원 등 운영과정에서의 많은 의혹이 나타나면서 (정권 실세 개입 의혹은) 점점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K스포츠재단이 한 재벌기업에 ‘비인기종목 유망주 육성 프로젝트’를 명목으로 80억원의 추가 지원을 요구했고, 최순실씨와 그의 딸 정유라씨가 소유한 독일 회사가 프로젝트를 주관하면서 해당 자금이 유입됐다고 보도했다. /뉴시스

조응천 “최순실 근처가면 다 없어진다더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박근혜 정권 비선실세 개입 의혹과 관련, “내가 청와대에 근무할 때도 정윤회 씨와 최순실 씨 근처에 가면 소리소문없이 다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분들이 있어서 저도 항상 그걸 유념하고 살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미 이렇게 의혹이 불거진 마당에 진상이 밝혀지고 국민들이 더이상 의구심을 갖지 않아야 국정 수행동력이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고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뉴시스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완주군의회 전화 290-2532 팩스 290-2539